

사람 중심 AI 기술·콘텐츠로 ‘정서적 교감’ 나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기술이 우리 생활에 접목되고 있다.

최근에는 AI가 의미 분석을 넘어 사용자의 감정 흐름까지 파악하여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지평도 펼쳐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술을 단순히 ‘도구’가 아닌 ‘생명력 있는 존재’로 재탄생시켜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정교함과 암도적인 속도라는 무기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광주 동구 I-PLAEX에 위치한 ‘리안소프트’(대표 최재광)로 사람 중심의 AI를 내세우며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술로 인간을 이롭게’라는 경영 철학을 가진 리안소프트는 지난 2024년 AI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첫 발을 뗐다.

전문 개발자가 아닌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재광 대표는 학생들의 성장을 돋는 일에 보람을 느꼈지만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했다.

‘기술이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최 대표는 교직을 떠나 개발자로 전향. 수년간 실무 개발 경력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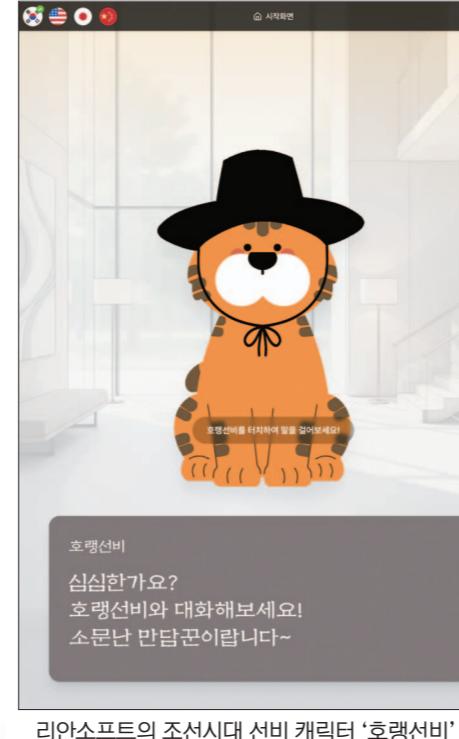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있던 최재광 대표가 2023년 프로그래밍 언어를 함께 배우던 친구 3명과 함께 뜻을 모아 문을 열었다.

‘이로움’(利)과 ‘편안함’(安)이라는 의미를 담은 회사명. “기술로 인간의 이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경영철학에도 그 의미를 담았다.

창업 후 업체는 타로, 사주, 전통문화 지식재산(IP)과 AI 기술을 결합한 정서 교감형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몰두했다.

AI가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장기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교감하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감정 소통 인터페이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이후 업체는 AI 분석, 실시간 애니메이션, 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 등 기술로



리안소프트의 조선시대 선비 캐릭터 ‘호령선비’



나만의 AI 타로 마스터 ‘리안 타로’ 이미지.



‘리브박스(LievBox)’가 제공하는 개인 운세 이미지.



교사 출신 창업가의 도전…새로운 감정 소통 시스템 구축 기술 통한 이로움·편안함 추구…공공·문화 분야로 확장도

기업과 소비자간(B2C) 구독 서비스와 기업과 기업간(B2B) 콘텐츠 제휴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대화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감정·스토리·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AI 기술과 캐릭터·콘텐츠를 결합하는 전략이다.

대표 아이템은 ‘리안타로’와 ‘호령선비’ 등이다.

‘리안타로’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감정 분석 기술과 실시간 카드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사용자의 감정과 질문에 맞춘 맞춤형 타로 해석을 제공한다.

또 감정 상태에 딱 맞는 조언과 위로를 제공하는 등 감정 분석과 실시간 타로 해석 기술을 결합해 현대인들에게 신선하고 개인화된 타로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웹 기반 카드 애니메이션과 개인화 리포트 기능으로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자기 성찰형 콘텐츠로 확장 가능하다.

단순한 카드 점술을 넘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반영한 몰입형 콘텐츠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리안소프트의 또 다른 아이템은 조선시대 선비 캐릭터 ‘호령선비’를 활용한 정서 상담 솔루션이다.

음성 합성과 감정 인식 기술을 접목해 대화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거나 정서적 위로가 필요한 청년층,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정서 교감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호령선비’는 전통 한옥의 미학과 철학자의 언어를 디지털 기술로 풀어낸 콘텐츠로 K-콘텐츠의 정서적 깊이를 보여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감정 테라피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리브박스(LievBox)’라는 공공기관·전시공간·문화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앤내·정서 인터랙션 플랫폼도 있다.

단순 키오스크가 아닌 음성 기반 대화, 감정 인식, 캐릭터 기반 UX, 기관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을 결합해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했다.

현재 리안소프트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며 장애인·노약자도 AI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장벽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찾기 어려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을 기준 설치된 키오스크에 접목시키는 데 물드하며 캐릭터 IP·정서 인터랙션·음성 기반 안내 기술을 결합한 독창적 모델을 앞세워 공공·문화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리안소프트는 향후 기업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제공 및 중국 시장 공략으로 K-콘텐츠와 AI 기술을 융합한 신규 수익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최재광 리안소프트 대표는 “기업 세대 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자’는 회사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선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창업 생태계의 아이디어 교류·협업·인재 확보, 제품 판로 확보 등 성장 과정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원 사업의 확대, 초기 판로 지원, 기술 실증 공간 확보 등 기술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성기 기자 y01404@gwangnam.co.kr

삼성전자, ISE 참가…혁신 디스플레이 선보인다

무안경 ‘스페이셜 사이니지’ 출시
업계 파트너십 통해 기업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3일부터 6일(현지시간) 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루션 ‘삼성 VXT’, 기업·교육·호텔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군을 폭넓게 선보인다.

전시관 입구에는 별도의 3D 안경 없이도 콘텐츠의 디테일과 3D 입체감을 표현하는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 3종과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컬러 이페이퍼’ 4종을 설치했다.

삼성전자는 먼저 85형 ‘스페이셜 사이니지(모델명 SMHX)’를 전 세계에 출시했다.

‘스페이셜 사이니지’는 3D 전용 안경 없이도 3D 공간감을 구현한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이다.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인 ‘3D 플레이트(3D

Plate)’가 적용돼 52mm의 슬림한 두께로도 마치 화면 안쪽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듯한 입체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발, 의류 등 전시 제품이나 제품을 착용한 모델의 정면, 측면, 후면을 아우르는 360도 회전 영상을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은 85형 크기 1종으로, 4K

MMF-A’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공개한 130형 같은 기술을 적용한 사이니지 제품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처음 선보인다.

‘마이크로 RGB 사이니지’는 마이크로 크기의 RGB(빨강, 초록, 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해 색상을 정밀 제어해 섬세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또 초슬림 프레임과 최신 AI 엔진을 텁재해 압도적인 성능의 화질과 음질을 제공한다.

‘더 월 올인원’은 디자인과 설치 간편성을 대폭 강화해 설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으로, 미리 제작된 프레임 키트와 일체형 스크린을 통해 초대형 LED 스크린도 단 몇 시간 만에 설치하기 쉽다.

기업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십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시스코, 로지텍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화상회의와 기업용 협업 환경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솔루션도 선보였다.

글로벌 네트워킹 및 보안 솔루션 기업인 시스코와 협업해 115형·146형 초대형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화상회의를 위한 시스코 기기 및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인증 받았다.

시스코 인증을 획득한 두 제품은 115형 4K 스마트 사이니지(모델명 QHFX), 146형 2K 더 월 올인원(모델명 IAB)으로, 복잡한 멀티스크린 구성 없이도 끊김 없는 매끄러운 화면과 몰입감을 선사해 대형 회의실의 가시성을 극대화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85형 모델 출시에 이어 ISE 2026에서 선보인 32형과 55형 모델도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또 130형 ‘마이크로 RGB 사이니지(모델명 QPHX)’와 108형 ‘더 월 올인원(모델명

삼성 월렛·아멕스 카드 해외 결제

안전한 모바일 결제 환경 제공

‘삼성 월렛’으로 해외 결제 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삼성 월렛의 해외 결제 가능 카드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카드를 4일부터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 월렛은 통한 결제는 NFC(비접촉식 결제)를 지원하는 전세계 아멕스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특히 삼성 월렛은 강력한 보안 기능을 기반으로 안전한 결제 환경을 지원해 해외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기술 기반의 글로벌 프리미엄 결제 및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아멕스’는 북미·유럽·아시아 지역의 고소득층과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신용 카드이다. 또 호텔·항공·레스토랑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아멕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삼성 월렛의 글로벌 결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차원철 부사장은 “이번 아멕스 카드 해외 결제 지원 추가를 통해 삼성 월렛의 글로벌 사용성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삼성 월렛은 더 많은 글로벌 결제 옵션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